

안세영·유아연 맹활약...광주체고 '우승 스매싱'

전국복합종별배드민턴리그

전주성심여고 3-1로 꺾고 정상에

남고부 전대사대부고는 동메달

광주체고가 제58회 전국복합종별배드민턴리그전에서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다. 전대사대부고는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체고는 지난 31일 막 내린 이 대회 여자고등부 결승에서 전주성심여고를 3-1(2-1 2-0 0-2 2-0)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안세영과 청소년 국가대표 유아연은 광주체고 우승의 주역이 됐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9위인 안세영은 세계 최정상급의 성인 선수와 겨뤄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유아연은 전주성심여고 김유정(2년)을 2-1(21-14 11-21 21-18)로 꺾었다. 이어 안세영도 이혜원(2년)을 2-0(21-9 21-6)으로 가볍게 꺾고 승기를 잡았다. 3세트 복식에서 최하람·정은영(3년)이 고은아·임원경에 0-2(10-21 9-21)로 졌지만 4세트 복식에 나선 안세영·유아연이 김유정·이혜원을 2-0(21-15 14-4)으로 제압하

며 우승을 확정했다. 광주체고의 우승에는 김명자 감독의 전략도 주효했다. 전대사대부고는 30일 남고부 준결승에서 당진정보고에 2-3으로 패해 아쉽게 결승행 티켓을 놓쳤다. 8강에서 광명복고를 3-1(1-3 2-0 2-0 2-0)로 꺾고 4강에 진출한 전대사대부고는 당진정보고를 상대로 두세트를 연속 내준 뒤 복식에서 두 세트를 가져왔으나 마지막 단식에서 아쉽게 패했다. 전대사대부고는 1세트에서 장수혁(3년)이 나서 고세영에 0-2(21-23 10-21)로, 2세트에서 권형

민(3년)이 김성재에 0-2(13-21 13-21)로 패했다. 하지만 3세트에서 김재현-노진성(2년)이 당진정보고 이병진-진용을 상대로 2-1(11-21 21-19 21-16) 승리를 거뒀고, 이어 4세트에서는 안윤성(2년)-나광민(3년)이 김순현-조성민을 2-1(19-21 21-16 21-11)로 제압,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지막 5세트는 국가대표인 김재현과 진용의 맞대결이 펼쳐졌으나 김재현이 0-2(5-21 10-21)로 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58회 전국복합종별배드민턴리그전에서 여고부 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광주체고 제공>



남고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전대사대부고 배드민턴팀.

<전대사대부고 제공>

전남 공도대표, 단체전·개인전 휩쓸었다

전국종별선수권 2개 부문 우승
개인전 고민구 15발 모두 명중

전남 공도대표팀이 제53회 전국공도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었다. 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공도대표팀은 최근 안동시 영락정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일부 개인전에 출전한 고민구(고흥 흥무정)는 15발을 모두 명중시키며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하(신안 용항정)는 한발이 아쉽게 14발이 14중을 기록한 5명의 선수들과 함께 3차례 연장전 끝에 비교승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공도대표팀은 단체전에서도 저력을 선보였다.

이기호-하선범(이상 진도 창덕정), 김경하-김승현(이상 신안 용항정), 안용환(강진 관덕정), 김도성(나주 인덕정), 고민구가 출전한 남일부 단체전에서 75발 가운데 61발을 명중시키며 58중을 기록한 경남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노길홍 전남공도협회 전무이사는 "선수들이 원팀의 마인드로 싸웠기 때문에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대회를 앞두고 신안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 우승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이겨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전남 공도대표팀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1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전남공도대표팀. 왼쪽부터 이기호, 하선범, 김승현 선수, 전남공도협회 전무이사 노길홍, 김창순 대한공도협회 부회장, 안용환, 김경하, 고민구, 김도성 선수. <전남도체육회 제공>



한국여자바둑리그 부광약품의 김채영(오른쪽)이 지난 30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에서 보령머드의 최정과 대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둑 여제' 최정 56연승 마감

바둑리그서 김채영에 패배
여자기사 상대 연승행진 멈춰

김채영 6단이 '바둑 여제' 최정 9단의 질주를 막았다. 한국여자바둑리그 부광약품의 김채영은 지난 30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에서 보령머드의 최정을 318수 만에 흑 1집 반으로 꺾었다. 김채영의 활약으로 부광약품은 보령머드에 2-1로 승리하며 4연패에서 탈출했다. 보령머드는 3연패에 빠졌다. 이 경기 전까지는 최정이 김채영에게 15승 2패

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또 최정은 올 시즌 10전 전승 행진을 펼친 것과 달리, 김채영은 8연승 후 2연패로 주춤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채영이 반전의 일격을 가하면서 최정은 올 시즌 10연승과 정규시즌 27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또 2018년 10월 11일부터 이어온 국내 여자프로 기사 상대 56연승(아마추어 상대 포함 57연승) 행진도 멈췄다. 김채영은 "최정 9단과 둘 때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바둑은 심리적으로 편하게 두려고 노력했다. 개인적으로도 연패를 끊었고, 팀도 승리해 더욱더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페더러, 이탈리아 소녀들과 '지붕 위 테니스' 화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스위스)가 지붕 위에서 테니스 경기를 벌였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2일 페더러가 이탈리아의 리구라의 건물 지붕에서 이탈리아 소녀 두 명과 함께 테니스 경기를 즐기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두 명의 이탈리아 소녀는 13살 비토리아와 11살 카롤라로 올해 4월 코로나19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에서 '지붕 위 테니스'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ATP 투어는 "당시 이들의 지붕 위 테니스는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900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며 "페더러가 7월 같은 장소를 방문해 이 소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비토리아와 카롤라는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인 줄 알고 나왔다가 옆에서 웃는 페더러를 발견하고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페더러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김을 사이에 두고 지붕 위에서 테니스 경기를 했다. 페더러는 영상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경기했지만 이번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우리는 이번 지붕 위 경기로 어디에서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를 마친 뒤 어린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낸 페더러는 영상을 통해 "라파엘 나달과 얘기해서 라파엘 나달 아카데미의 서머 캠프에 초청하도록 했다"고 마지막 선물도 전달했다. /연합뉴스

영국 휠체어 농구 선수 패럴림픽 출전 위해 '다리 절단 고민 중'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영국 휠체어 농구 선수가 다리 절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1일(한국시간) "영국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조지 베이츠(26)는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위해 다리 절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츠는 11살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됐다. 목발 등 보조 기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다. 스포츠를 매우 좋아했던 베이츠는 장애를 얻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 농구선수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각급 국가대표에 선발돼 이름을 날렸다. 최근엔 동료들과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츠는 장애인 국제스포츠 대회 중 가장 큰 패럴림픽에 첫 참가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베이츠가 가진 장애 등급은 패럴림픽 출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베이츠는 "13살 때 휠체어 농구를 접한 뒤 삶의 의지를 갖게 됐다"며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장애등급 설정에 관해선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의 종류는 많다"며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이츠는 IPC가 장애등급 재설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다리를 절단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속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다리를 자르는 일도 고민하고 있다"며 "난 지난 10년 동안 패럴림픽 출전의 꿈을 꾸고 살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전설의 시작 그가 돌아온다

7월 29일 개봉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강철비2: 정상회담
2관	강철비2: 정상회담, #살아있다, 고 피쉬!
3관	반도
4관	반도
5관	반도
6관	강철비2: 정상회담
9관	강철비2: 정상회담
7관 씨네커를	강철비2: 정상회담, 알라딘 존 워: 특별판, 세인트 주디 모든 것을 벗어던진 특별한 여행
8관 씨네커를	반도, 빅사크 3: 젤리몬스터 대소동 1942: 연노운 배틀, #살아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